

I. 상담실적

- 상담기간: 2023. 12. 13.(수) 06:00 ~ 23:00
- 상담건수¹⁾: 517건

II. 주요의견 내용

○ 방송 호평

-프로그램명 : 「홍김동전」

-방송일시 : 2TV (목) (20:30-21:45)

멤버 간 케미가 너무 좋아서 웃으며 시청한다. 홍진경 씨가 다양한 변신으로 항상 새로움을 주는 점, 조세호 씨가 좋은 말과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점, 김숙 씨와 주우재 씨의 개그감과 착한 모습 등 너무 보기 좋다. 제작진 분들에게도 감사하다. 재미에 비해 시청률이 저조해 안타깝다. 2024년에는 시청률도 오르고길 바란다.

○ 업체 선정 제언

-프로그램명 : 「박원숙의 같이 삼시다」

-방송일시 : 2023. 12. 3.(일) 1TV (09:00-10:10)

이날 출연자들이 방문한 여주의 식당을 찾아갔다. 물론 「박원숙의 같이 삼시다」가 식당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, 방송에 나온 식당을 찾아가는 시청자들이 많다. 방송에서 촬영할 때와 일반인이 방문했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. 그러나 해당 식당의 경우 그 차이가 너무 커서, 일부러 여주까지 찾아간 시청자로서 굉장히 실망했다.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업체를 조금 더 신중하게 섭외해 주기 바란다.

III. 청원현황

- 신규청원
 - 4건.
-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 - 청원 답변 게시 : 더 라이브 폐지 반대 외 22건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<http://petitions.kbs.co.kr>)

1)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

IV. 일일 상담내용

1. 상담실적 : 총 517건

○ 형태별 분류

전화	인터넷	우편·FAX	방문	ARS ²⁾	계
284	18	1	-	214	517

○ 채널별 분류

1TV	2TV	라디오	DMB	인터넷	非채널	계
268	146	14	-	-	89	517

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	단순문의	기타	계
106	411	-	517

○ 분야별 분류

방송	기술	경영	기타	계
410	0	29	78	517

시청자 의견	문 의
<p>【편 성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일요일은 즐거워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후속 방송 요청 <p>【시사·교양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연자 제언 ○ 「해 볼만한 아침 M&W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연자 발언 제언 <p>【연예·오락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박원숙의 같이 삼시다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체 선정 제언 ○ 「홍김동전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송 호평 <p>【라디오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연자 발언 제언 ○ 「주현미의 러브레터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송 호평 	<p>【방 송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아침마당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방송 정보’ 문의 28건 ○ 「6시 내고향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유자’ 연락처 문의 26건 ○ 「2TV 생생정보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황금토마호크’ 연락처 문의 16건 ○ 「KBS 뉴스 9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보도 정보’ 문의 9건 ○ 「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방송 정보’ 문의 8건 <p>【경 영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홈페이지」 문의 10건 ○ 「프로그램 구입」 문의 9건 ○ 「전화교환」 문의 4건 ○ 「사업 및 행사」 문의 3건 ○ 「주차」 문의 1건 외 2건 <p>【기 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전 문의사항 포함 78건

2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
2. 프로그램별 의견

의견	세부내용
[편 성]	
후속 방송 요청	<p>○ 「일요일은 즐거워」 ‘위험한 초대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1. 2. 25.~2003. 11. 2. (일) 2TV 방송. (총 142부작) - 50주년을 맞은 공영방송 KBS에서 레전드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「일요일은 즐거워」의 ‘위험한 초대’를 다시 제작해주었으면 한다. 수영장에서 펼쳐지는 물대포 토크쇼 시즌2가 보고 싶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이**</p>
[시사 · 교양]	
출연자 제언	<p>○ 「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 ‘으슬으슬 찬바람 불면 생각난다! 국물 보양식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12. 13.(수) 1TV (10:00-11:00) - 경남 창원외의 시청자이다. 예전에도 몇 차례 건의한 적이 있는데, 요리연구가가 조리법을 설명할 때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. 시정이 되지 않아 보기 불편하다. 앞으로는 위생에 더 신경써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출연자 발언 제언	<p>○ 「해 볼만한 아침 M&W」 ‘이슈토크W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12. 13.(수) 2TV (07:00-09:00) - 영화 「서울의 봄」이 흥행하고 있는데, 이날 패널이 출연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났던 봄의 열풍에 대해 설명했다. 그런데 마지막 멘트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느낌을 받았다. 현 정부를 비난한 것은 아니지만, 내년 총선을 언급하며 암암리에 본인의 정치성향을 드러내어 시청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
의견	세부내용
[연예 · 오락]	
<p>업체 선정 제언</p> <p>방송 호평</p>	<p>○ 「박원숙의 같이 삼시다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12. 3.(일) 1TV (09:00-10:10) - 이날 출연자들이 방문한 여주의 식당을 찾아갔다. 물론 「박원숙의 같이 삼시다」가 식당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, 방송에 나온 식당을 찾아가는 시청자들이 많다. 방송에서 촬영할 때와 일반인이 방문했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. 그러나 해당 식당의 경우 그 차이가 너무 커서, 일부러 여주까지 찾아간 시청자로서 굉장히 실망했다.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업체를 조금 더 신중하게 섭외해주시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 <p>○ 「홍김동전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TV (목) (20:30-21:45) - 멤버 간 케미가 너무 좋아서 웃으며 시청한다. 홍진경 씨가 다양한 변신으로 항상 새로움을 주는 점, 조세호 씨가 좋은 말과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점, 김숙 씨와 주우재 씨의 개그감과 착한 모습 등 너무 보기 좋다. 제작진 분들에게도 감사하다. 재미에 비해 시청률이 저조해 안타깝다. 2024년에는 시청률도 오르길 기원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n**</p>
[라디오]	
출연자 발언 제언	<p>○ 「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12. 12.(화) 1R (15:30-15:58) - 이날 당뇨병 환우의 삶 증진 활동을 하는 패널이 출연해 소아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. 방송 초반 패널에 대해 소개했는데, 정보통신학과 수석 졸업 등 이력이 화려했다. 그런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‘저희나라’라는 표현을 사용해 듣기 불편했다. 앞으로는 제작진도 출연자가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
의견	세부내용
방송 호평	<p>○ 「주현미의 러브레터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12. 13.(수) 2R (09:00-11:00) - 부산에서 매일 KBS 라디오를 청취하는 애청자이다. 「주현미의 러브레터」의 경우 매일은 아니지만, 들을 때마다 기분 좋게 잘 듣고 있다. 해당 방송을 좋아해서 외출 시 택시, 버스 기사님들께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